

2026년도 임상도 정보변경 신청 접수 시작

현장 확인 거쳐 임상도 최신 정보 반영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2026년 임상도 정보변경 신청을 3월 4일(수)부터 9월 30일(수)까지 받는다.

임상도(나무지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작되는 산림 지도로, 우리나라 산림의 분포와 상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수종(나무 종류), 수관밀도(나무가 우거진 정도), 영급(나무 나이) 등을 구분해 제작한 1:5,000의 대축적 산림 지도다. 진흥원은 매년 임상도 정보변경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을 거쳐 최신 정보를 임상도

에 반영하고 있다. 임상도는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매년 전국 단위로 최신 정보 반영이 가능하도록 제작



▲한국임업진흥원 제공

되고 있다. 다만 영상정보와 현장 조사 간의 시차, 연중 시행되는 다양한 산림 사업 등으로 실제 현장 정보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진흥원은 임상도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보를 수시로 갱신하기 위해 2016년부터 '임상도 정보변경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상도 정보는 산림청 공간정보서비스 누리집과 임업정보 다드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변경 신청 방법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임업정보 다드림, 산림청 공간정보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공간정보실 관계자는 "산림정보의 가치는 정확성과 신속성에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해 산주와 임업인의 편익을 높이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산림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산림조합중앙회,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산림조합중앙회(사업대표이사 강대재)는 봄철 건조기에 증가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7일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 등산로 일대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봄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캠페인 이후에는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등산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Plogging) 활동도 병

행하고 있다. 한편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3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100대 명산 등 주요 관광지를 중

심으로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등산객과 산림인접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등산객 대상 산불 예방 홍보와 계도 활동 진행

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등산객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과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와

행해 산림환경 정화와 산불 확산 요인 제거에 힘을 보탰다.

강대재 사업대표이사는 "봄철 산불은 등산객이나 산나물 채취 등 입산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산불 예방에 관심을 갖고 산림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이어가겠



▲산림조합중앙회 제공

국립산림과학원, 잎마름병균 확인으로 멸종위기 가문비나무 보전 기반 마련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전남대학교 안영상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고산수종 가문비나무의 어린 나무 고사 원인을 국내 최초로 규명했다.

가문비나무는 산림청이 지정된 7대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중 가장 높은 곳에 자라는 교목성 수종으로, 현재 계방산, 지리산, 덕

유산 등 해발 1,500m 이상의 고산지대에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쇠퇴가 가속화되면서, 2050년경에는 국내 자생지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은 가문비나무 복원을 위한 양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린나무의 낮은 생존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하던 중, 곰팡이병 병원균인 '잎마

름병균(Alternaria alternata)'을 확인했다. 해당 곰팡이균은 건강한 어린나무에 접종하여 병원성을 검증한 결과, 잎이 마르는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심한 경우 한 달 이내에 고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가문비나무의 어린 나무를 고사시키는 특정 잎마름

병균을 국내 처음으로 밝혀낸 사례로, 안정적인 양묘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단서를 찾았다는 점에

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성과를 인정받아 국제 학술지 'Plant Disease' 2026년 2월호에 게재되어 국내외 산림복원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물정보연구과 임효인 박사는 "앞으로 원인 병원균에 대한 맞춤형 방제 기술을 개발하여 건전한 양묘 기술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남부지방산림청, 영덕서 '영농부산물 파쇄' 실시

산불 예방과 퇴비 활용...1석 2조 효과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봄철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 7일(토) 경북 영덕군 영덕읍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남부지방산림청과 산림청 산림보호국 합동으로 3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을 실현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작년 봄 전국적으로 317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 중 소각에 의한 산불이 65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할 만큼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산불 방지 인력과 장비(목재파쇄기)를 집중 투입하여 산림인접지 내 영농부산물을 지속적으로 파쇄할 계획이다.

또한 파쇄된 영농부산물은 현장에서 즉시 토양 퇴비로 환

원되어 산불 예방은 물론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각에 의한 산불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산불이지만 여전히 산불의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주민들께서도 쓰레기와 영농부산물의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산불예방에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행사 실시(남부지방산림청 제공)

산림청, '3월의 임업인'

안성, 목이버섯 생산하는 박종필 임업인 선정

'Ready-Set-Go' 주민 대피 가이드라인 확립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기도 안성시에서 표고버섯과 목이버섯을 생산하는 그린팜 박종필(49세) 대표를 선정했다.

박 대표는 대학을 졸업한 2000년부터 버섯 재배에 전념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2016년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이후, 경기도 안성시에 9개 동의 버섯 재배사·점종실·배양실을 조성하며 본격적으로 표고버섯, 목이버섯 등 버섯류 생산에 나섰다.

박 대표는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버섯 균종별 특성을 파악하고, 온도와 습도 등 최적의 재배환경을 조성해 최상품의 버섯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국내산 품종과 배지만을 사용해 상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단순 생산 중심의 구

조에서 벗어나 가공과 판로 확대에도 주력했다. 산림조합 직거래 장터와 로컬푸드 매장 등 오프라인 판로는 물론 온라인 직거래 채널을 구축했으며, 버섯분말·건버섯·배지키트 등 다양한 가공 상품을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였다. 현재는 연간 약 50톤의 버섯을 생산하며 3억원 규모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다.

아울러 박 대표는 2018년 한국 임업진흥원 버섯 분야 '임업멘토'로 위촉된 이래, 청년들과 예비임업인들에게 버섯 재배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이외에도 버섯타기 체험, 종균접종 체험 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임업의 6차 산업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상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 국장은 "산림청은 지난해 '표고버



▲산림청 제공

섯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하는 등 버섯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버섯재배 임가가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수 있도록 생산 기반부터 재배기술, 품질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도매시장 거래,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경매·입찰
품목별로 정해진 시간에 공개적·경쟁적 거래를 통하여 수급사정을 반영한 가격에 낙찰



정가매매·수의매매
출하자와 구매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조건(가격, 물량 등)을 기초로 도매시장법인(경매사)이 거래를 주관



전자거래(상·물 분리거래)
도매시장법인이 운영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면 물건을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송



예약거래
도매시장법인과 상의하여 미리 예약거래 (3일, 7일, 한달, 시즌별 등)

회원법인명단